



주LA총영사관,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 남가주한국기업협회와 협업하여 15여개 구인처의 50개 일자리 제공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시 고려사항(전공과의 연관성, 비자 지원) 파악, 맞춤형 일자리 발굴

-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총영사 김영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A무역관(관장 박근형)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3일(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그간 13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취업박람회와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취업박람회로, 남가주한국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협업하여 15여개 구인처의 약 5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
- 이번 취업박람회에 앞서 미 서부지역 대학교(USC, UCLA 등) 한인학생회와 협업하여 사전에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본인 전공과의 연관성(38%)과 비자 지원 가능 여부(30%)를 구직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행사는 채용시 비자 지원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 구인처 위주로 모집하여 우리 청년들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기업별 배정된 부스 내에서 진행하는 1:1 상담 뿐만 아니라 각 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기업별 채용 설명회를 동시에 진행하여 구직자들의 각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일정상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 관심 있는 구직자들은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구인처 기업들의 채용 포지션 정보를 확인하고, 구인처와의 1:1면접 및 채용설명회에 참가 신청 가능

- 일정상 이번 행사에 참가가 어려운 구직자들은 관심 있는 직무를 기입하여 제출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취업박람회 종료 후에도 관련된 일자리를 연결하여 가급적 많은 채용 매칭을 지원할 예정

□ 김영완 LA총영사는 “우리 정상직의 미국 국민(2023.4월) 방문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이니셔티브’ (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 등 양국 간 교류 계획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남가주에는 좋은 과학기술 허브와 큰 한인 사회가 있는 만큼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취업박람회가 미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청년들에게는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최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 기업들은 우수한 한인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 박근형 KOTRA LA무역관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실제로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미국 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채용박람회가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밝힘.

-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신청서 링크(<https://forms.gle/syiLCpVGo9kbpb2y7>)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월간 법률뉴스레터 발간, 창업·취업 세미나 개최,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서의 인턴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 : 행사포스터.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영사 윤지완 (213-385-9300)
	담당자	내선 (403)